생전예수재 49일 기도 봉행

법주사에서는 살아 있는 동안에 공덕을 미리 닦아 사후에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
극락왕생하고자 하는 불교의 수행의식인 "생전예수재 49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생전예수재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수행과 회향을 실천하는 "자리이타행"으로 살면서
지은 죄와 빚을 갚는 의식으로 자신의 업을 참회하고 앞으로 악업을 짓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보시를 통해 공덕을 쌓는 의식입니다.
또한 단순한 신앙이 아닌 신행信行으로 스스로 실천하는 불교의 가장 적합한 실천행으로써
불자라면 반드시 동참해야 할 의례입니다.
속리산 법주사에서는 계묘년 윤2월에 맞춰 생전예수재를 봉행합니다.
생전예수재라는 인연을 통해 법주사 불자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참회하며
함께 보시하는 공덕을 통해 스스로 복을 짓고 스스로 복을 받는 불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생전예수재 봉행일정

- 입재 : 2월 20일 (음력 2월 1일) 월요일
- 1재 : 2월 26일 (음력 2월 7일) 일요일
- 2재 : 3월 5일 (음력 2월 14일) 일요일
- 3재 : 3월 12일 (음력 2월 21일) 일요일
- 4재 : 3월 19일 (음력 2월 28일) 일요일
- 5재 : 3월 26일 (음력 윤2월 5일) 일요일
- 6재 : 4월 2일 (음력 윤2월 12일) 일요일
- 회향 : 4월 9일 (음력 윤2월 19일) 일요일

■ **동참금** : 1인 100,000원 (농협 403020-51-010482 법주사)

■ **문의 및 접수** : 법주사 원주실 (043)543-4755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www.beopjusa.org 2022|10

부처님 말씀 사람의 마음 / **이달의 법문** 망령된 인연을 떠나라 / **주지스님 법문** 어디에나 있는 부처님 / **특별기획** 월탄큰스님을 추모하며 / **수행여화** 앉으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 **걸망메고** 선불교와 사찰음식 / **법주사 소식** / **법주사 행사일정** / **수능백일기도** / **다도회 합창단원 모집** / **법주사 광명진언 기도** /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기도** / **생전예수재 49일기도 봉행**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은 마치 허상과도 같아

어지러운 마음에 의해 여러가지 모양으로 나타난다.

사람의 마음은 마치 바람과도 같아 붙잡을 수 없으며

모양도 보이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멈추지 않고 그 거품은 곧장 사라진다.

사람의 마음은 불꽃과도 같아 인연에 닿으면 타오른다.

사람의 마음은 번개와도 같아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순간에 소멸한다.

사람의 마음은 허공과도 같아 뜻밖의 연기로 더럽혀진다.

사람의 마음은 원숭이와도 같아 잠시도 그대로 있지 못하고 계속 움직인다.

사람의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과 같아 온갖 모양을 그려 낸다.

〈보적경〉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2022 10 | 통권 369호



2 **부처님 말씀** 사람의 마음

4 **이달의 법문** 망령된 인연을 떠나라 법주사 조실 월서 대종사

10 **주지스님 법문** 어디에나 있는 부처님 정도 스님

12 **특별기획** 월탄큰스님을 추모하며 편집부

14 **수행여화** 앉으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현진 스님

17 **걸망메고** 선불교와 사찰음식 진정 스님

20 **법주사 소식**

21 **법주사 행사일정**

22 **수능백일기도 / 다도회 · 합창단원 모집**

23 **법주사 광명진언기도 /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기도**

24 **생전예수재 49일 기도 봉행**

월간 법주회보 불기 2566(단기4355)년 10월호 통권 369호 / 1989년 9월 7일 등록 (등록번호 충북 라 01005) / 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 / 발행인 · 정도 / 주간 · 현진 / 편집장 · 무경 / 편집위원 · 김경래 / 전화 (043)543-3615 / 팩스 (043)543-3620 / 발행처 · 법주사

망령된 인연을 떠나라

월서 대종사 법주사 조실



영광독요형탈근진 靈光獨耀迥脫根塵
체로진상불구문자 體露眞常不拘文字
심성무염본자원성 心性無染本自圓成
단리망연즉여여불 但離妄緣則如如佛

신령스런 광명이 홀로 빛나서 육근·육진을 멀리 벗어났도다.
본체가 참되고 항상함을 드러내니 문자에 구애되지 않네.
심성은 물들지 않아 본래 스스로 원만하나니
다만 망령된 인연만 떠나버리면 곧 여여한 부처라네.
– 백장회해–

당나라 백장회해 선사의 게송으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하지만 백장 선사의 게송보다는 백장선사의 제자인
신찬선사와 그 은사인 계현법사의 일화가 우리들에게는 더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에 “계현법사” 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는데 스님이 상좌를 하나 두었는데
“신찬선사”라고 하는 스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찬스님은 은사스님 밑에 있다가 참선도 안 하고 글이나 배우고 일이나 하니까
참선을 하고 싶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게 백장회해스님 밑에 가서 참선해서 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깨쳐서 몇 년 만에 누더기를 입고 은사스님께 돌아오니 계현스님이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떠나서 무슨 짓을 했느냐?”
“아무 짓도 크게 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짓도 없으면서 장돌뱅이하고 돌아다녔느냐?
산에 가서 나무나 해오너라.”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왔어요. 떡 하니 나무를 해오니까
“불 때서 목욕물이나 데워라.”
목욕물을 데워서 목욕을 합니다.

법주사 진영각 신찬선사 벽화

"여기 와서 내 등 밀어라."
등을 쓱쓱 문대는데 문대다 보니 스님이 살이 쪘거든요. 등을 문대다 하는 말이,

호호법당 好好法堂이여
이불불령 而不佛靈이로다.

좋고 좋은 법당이여, 법당은 좋다만
부처가 영험이 있는 둥 없는 둥이로다.

"이놈이 뭐라고 하나?" 쳐다보니까

불수불령야능방광佛雖不靈也能放光 이로다.

부처가 영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방광은 할 줄 아는구나

'이 자식이 어쩌다가 헛소리 좀 하는가?' 싶어서 못 들은 체하고 말았어요.
그 뒤에 또 며칠 후에 경상을 놓고 창문 앞에서 경을 보고 있는데
창문을 한쪽은 닫아놓고 한쪽은 열어 놨거든요.
벌이 한 마리 들어와서 열어놓은 문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열어놓은 문으로 쑥 나가면 나갈 것인데 그건 안 보이는 겁니다.
닫아놓은 봉창 문을 당당당 봉창을 두드리고 있거든요.
신찬선사가 들어와서 한다는 소리가

공문空門에 불긍출不肯出하고, 투창投窓에 也大痴야대치로다.
공문으로 나가기를 좋아하지 않고, 창을 두드리고 있으니 참 어리석구나.

백년百年을 찬고지鑽古紙한들
백 년 동안을 옛 종이를 뚫고 있은들
하시何時에 출두기出頭期아.

어느 때에 머리가 쑥 나갈 기약이 있겠는가?

오래된 책을 古紙라고 하거든요. 백 년 동안을 책 들여다본다고 해탈할 기약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책에서 해탈 얻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약방문 들여다본다고 병 낫느냐?
이겁니다. 약방문 암만 다 외워봐야 약 안 먹으면 소용없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자기스님하고 벌 하고 싸잡아서 욕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계현스님이 화가나서 말했습니다.

"야, 네가 어디 다니면서 무슨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제가 백장회해선사 밑에 가서 한 생각 쉬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은사인 계현법사는 대종을 쳐서 대중을 모으고 상좌인 신찬스님을
법상에 청해 모시고 법을 청했습니다. 그때 신찬스님이 게송하나를 대중에게 전합니다.

靈光獨耀迥脫根塵
體露眞常不拘文字
心性無染本自圓成
但離妄緣則如如佛

신령스런 광명이 홀로 빛나서 육근 · 육진을 멀리 벗어났도다.
본체가 참되고 항상함을 드러내니 문자에 구애되지 않네.
심성은 물들지 않아 본래 스스로 원만하나니
다만 망령된 인연만 떠나버리면 곧 여여한 부처라네.

신찬선사의 게송과 같이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이 마음자리는 육체나 마음이나
그 어떤 인연에도 끄달리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이 성품은 만고불변(萬古不變)하여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의 성품과 같이
본분소식(本分消息)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나 망령된 인연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 부처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지스님 법문

어디에나 있는 부처님

정도 스님 법주사 주지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가 모두
당신과 같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자신 안의 분노와 질투를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다면
항상 평화로울 수 있다면
우리는 부처님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부처님이 있습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어느 곳이나 언제나
부처님이 있고 한 분만이 아닌
셀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이 있습니다.

월탄큰스님을 추모하며

법주사 편집부



지난 9월 21일 수요일은 법주사 회주이신 미룡당 월탄대종사님의 49재가 봉행 된 날이었습니다.
법주사는 월탄대종사님의 삶과 온전히 하나였습니다. 월탄스님을 설명하며 법주사 없이 불가능한 것처럼
법주사를 설명하면서 큰스님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스님을 추모하는 글을 올립니다.

세속을 여읜 곳인 속리산에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 숨 쉬는 불국정토를 꿈꾸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 미륵 용화세계를 실현하시기 위해 평생을 쉼 없이 정진하셨던
큰 스님의 빈자리를 이제야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곳 법주사에 큰스님의 눈빛이, 손길이, 관심이 서려 있지 않은 곳이 한 곳이라도 있을까요.
현재의 법주사의 모습은 미륵부처님의 마음과 큰스님의 마음이 둘이 아닌 그 마음 자체가 구현된
부처님 세계가 되었습니다.

큰스님께서는 제가 법주사에 소임을 보며 새로운 불사를 하거나 도량을 정비할 때마다
항상 본보기가 되어 주었고 불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는
정답을 제시해 주시는 모범 답안과 같은 든든한 어른이셨습니다.

제가 어리석어 큰스님께서는 항상 법주사와 함께 하실 거라 생각하고
더 자주 찾아뵙고 더 많이 묻지 못한 아쉬움은 이제 다시는 그럴 수 없다는 현실과
저 자신에 대한 원망으로 다가옵니다.

마지막 뵈었을 적에 제 손을 꼭 잡으시고 심신이 지쳐 있으시면서도
법주사 주지에게는 여러 가지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며
끝까지 법주사에 대한 걱정과 후학들에 대한 당부 말씀들이 시간이 갈수록 무겁게 다가옵니다.

큰스님
평소 스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가르침 잊지 않고
법주사가 진정한 미륵 용화세계로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큰스님께서도 손환사바하시어서 함께 용화세계 머물러 주소서.

앉으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현진 스님 청주 마야사 주지

며칠째 잔디마당의 풀 뽑는 일에 매달리고 있다.
오늘 아침에도 호미를 들고 마당을 돌며
뽑아주었다. 어제 작업한 곳도 다시 가보면
놓친 풀들이 또 있다. 아무리 꼼꼼히 살핀다 해도
완벽하게 작업을 할 수가 없다.
잔디와 아주 흡사하게 위장하여 숨어 있으므로
눈길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멀리서 보면 잔디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모양과 색이 비슷하다. 더군다나 잔디를
깎아 놓은 상태에서는 더 구별하기 힘들다.
방문자들은 풀이 없는데 무엇을 하느냐고
되묻기도 한다. 그러나 과객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주인의 눈에만 띄는 풀.
정확한 풀이름은 모르겠으나 잔디 속의 빈틈에서
교묘한 위장술로 생존하므로
나는 그냥 '위장풀'이라 부르고 있다.
정원을 지닌 이들은 이미 경험했겠지만,
이놈들을 손으로 모두 제거하기란 쉽지 않다.
약을 몇 번 살포해보았으나 그것도 신통한 일이
아니라서 틈나는 대로 뽑아내야 하는 수밖에 없다.
한 때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란 책이
세간의 화제였는데, 이곳 잔디 마당의 풀은
'앉아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잔디 틈에 숨어 있는 풀은 호미를 들고 앉아야
비로소 눈에 들어온다. 걸음을 멈춰야
그제야 보이는 것이다.
잘 관리된 잔디 마당과 마주하면 고요와 침묵의
공간 속에 머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정리되고
마음이 맑아진다. 이러한 재미가 없었다면
아마 잔디 마당을 일찍 포기했을지 모른다.
잘 깎은 잔디마당은 금방 이발한 남자아이
머리통처럼 단정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잔디마당은 정기적인 관리가
절대 요건이다.
이곳을 처음 방문하는 이들이 가장 감동하는
공간을 꼽으라면, 잘 다듬어진 잔디마당이다.
주인장의 부지런한 손길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머리 풀어 헤쳐 놓은 것처럼 풀이 어지럽게
웃자라 있다면 보는 이들도 정신 산만할 것이다.
그러므로 게으른 사람이 머물게 되면,
잔디마당은 제값을 못한 확률이 높다.
여러 풍경 가운데 녹색 잔디가 곱게 펼쳐져
있는 것만큼 눈을 즐겁게 하는 것도 없다.
나는 근래에 가을 석양을 마당에서 즐기고 있다.



낙엽 한 점 없는 정갈한 마당에서 해지는 정경을
바라보며 앉아 있으면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난다.
나 혼자 이런 풍경을 보며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가?
하는 물음을 던지기도 한다.
어제처럼 노을이 곱게 지는 때에 누군가가
곁에 있었다면 말없이 손을 잡아주었을지 모르겠다.
행복을 나눌 수 있어서 고맙다고.
중세 수도사로 실용적인 가드닝에 관심이 많았던
알베르투스 마그누스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멋지게 다듬어진 짧은 잔디만큼
풍경을 새롭게 하는 것은 없다."

이것이 내가 잔디마당을 가꾸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정원의 백미白眉는 잔디라 해도
과언 아니다. 잔디만 잘 가꾸어 놓으면
정원의 풍경이 확 살아난다.

그러므로 잔디마당은 정원 일의 절반에
해당 되는 셈이다. 여름날 잔디를 정갈하게 깎고
아침을 맞이하면 얼마나 뿌듯하고 상쾌한지 모른다.
마당이 단조로운 것 같지만 일 년 내내
새로운 풍경을 연출하는 것만은 사실이다.

13세기를 살았던 사디(이란의 수피 시인)는
자신의 정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찬했다.

"만약 지구상에 파라다이스가 존재한다면
그곳은 여기, 여기, 여기에 있다."

정원을 가꾸며 사는 이들이라면 자신의 공간이
모두 천국이며 정토일 것이다.
나 또한 잔디마당 앞에 서면 이 말에 동의하게 된다.
이보다 좋은 세계가 어디 있을까.
여기는 내가 설계하고 내가 건설하는
지상 극락이나 다름없다.
서양에서는 정원사를 종종 화가에 비교하기도 한다.
화가가 붓과 물감을 들고 화폭에 자신의 꿈을
그리는 사람이라면,
정원사는 호미와 삽을 들고 땅 위에
자신의 꿈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인상주의 화가 클로드 모네 역시 식물에 빠져
직접 자신의 정원에 꽃과 나무를 심고
그걸 즐겨 그렸던 화가로 알려져 있다.
영국 시인 얼리엄 워즈워스 또한 자신이
시인으로 유명해지지 않았다면 정원사로
유명해졌을 것이라고 했다.
그만큼 정원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사랑이 깊었다.

그 외에도 피터 래빗을 만들어 낸 영국 동화작가
베아트릭스 포터가 만들어 놓은 500만 평의
정원 역시 지금까지 최고의 명소로 꼽히고 있다.
예술 분야뿐 아니라 토머스 제퍼슨과
윈스턴 처칠 역시 은퇴 후
정원사의 길을 걸었던 정치인들이다.
그러니까 정원을 가꾸는 일은
그 어떤 분야와 상관없이 사랑할 수 있는 일이며,
전문가가 아니라도 자기만의 비밀공간을
꾸밀 수 있다는 뜻이다.
꽃을 가까이 두는 일은 지금껏
내가 즐겼던 취미 중에 가장 오래 관심을
가지는 일이기만 하지만,
소박한 기쁨을 누리는 영역이기도 하다.
문을 열면 정원이 있어서 외롭지도
무료하지도 않다.
올봄에 씨앗을 뿌려 놓은 메리골드(만수국)가
이제야 군락으로 피고 있다.
그 씨앗은 어디서 구해 온 것이 아니라
지난해에 채취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돈 들이지 않고도 높은 행복을
지닐 수 있는 비결은 이보다 좋은 것이 없다.
이 꽃에는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이란
뜻을 품고 있단다.
모두들 행복하고 풍요로운 가을 되시길.

선불교와 사찰음식

진정 스님 법주사 포교국장

선이란 마음의 깨달음을 통해
세계와 인간의 삶을 조명하는 것이다.
선은 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수행방법의 하나이다.
선을 가장 쉽고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지나가 버린 과거의 추억이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호기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지금 바로 이 순간의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계, 정, 혜 삼학을
닦아야 한다. 이 가운데 계는 자신의 몸을
다스리고 지키기 위함이니, 곧 삼업을 맑히는 것이
계를 닦음이다. 삼업을 닦음이란
신업, 구업, 의업을 닦음을 일컫는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먹는 것" 역시 먹고자 하는
의도와 음식을 받아들이는 몸이 그 업의 근간이
되므로 곧, 수행과 깊은 맥이 닿아 있다고 하겠다.

음식문화의 정의

국가별, 대륙별, 종교별, 인종별로,
기타 많은 갈래로 나누어진 음식문화는 그 지역적,
환경적, 기후적인 특성으로 인해
매우 다양한 모습을 가진다.
음식문화의 시초는 인류의 생명 유지를
보장받기 위해 먹는 행동, 그 자체였다.
우리는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
먹는 것은 생존의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인간의 문화는 그러한 조건 충족을
본능에만 맡기지는 않는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것이 음식문화를 만들어 낸다.
음식문화는 먹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으므로
먹어야만 하는 필연을 우리들의 법칙으로 만들고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그리고 그 법칙으로부터 끌어낸 지역적, 사회적,
집단적, 관습적, 종교적인 조건에 따라
다양한 음식문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선식禪食의 정의

선식, 사찰음식은 한마디로 불교를 수행하는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기 위하여
그들이 모여서 사는 곳인 절에서
만들어 먹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다.
불살생不殺生 계율에 의해 우유를 제외한
동물성 식품은 이용하지 않았고
자연물이 가진 맛과 향이 그대로 배어 있으며
재료 면에서 본다면 현실에서 성인병 예방을 위한
건강식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채식과

다른 점은 별로 없다. 하지만 음식에 대한
일반적 상식과는 차이가 있는 불교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간단하고 소박한 재료와 양념을
최대한 절제하여 자연의 풍미가 살아있는
독특한 맛의 경지를 이루었다.



한국불교의 선식禪食 역사

우리나라는 신도들이 가져오는 공양미로
음식을 만들지만, 태국, 캄보디아와 같은
소승불교 국가에서는 탁발한 음식으로
공양을 하므로 음식을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 일본 등의 북방불교의
영향을 받은 나라는 사찰마다 고유한
사원경제가 성립되고,
특히 중국의 백장청규에서는
선농일치禪農一致와 자급자족의 사상이 부각되며,
그에 따른 식문화가 형성되어 사찰음식 문화가
존재하지만, 남방불교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문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삼국시대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예외적인 식생활 형태로서 사찰음식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며, 시대적 변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삼국시대에는 음차의 습관이 생기고
다기와 식기가 발달하였으며,
살생을 금하고 육식을 못 하는 계율로 식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신라 법흥왕 16년에는
살생금지령이 내려지고, 백제의 법왕은 살생을
금하고 사냥과 고기잡이 도구를 불태워
없애기까지 했지만, 신라의 불교는 원광법사가
세속오계의 규범에서 살생유택이라 하여
어느 정도의 육식은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 시대에는 불교가 융성해지면서
육식의 식습관이 쇠퇴하고,
식물성 기름과 향신료의 이용이 많아지면서





사찰음식이 크게 발전하게 된다.

선식의 대중화

현대인의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동물성 지방의 과잉섭취에 의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로 인해 열량 과잉,
비만과 혈관 속 콜레스테롤 축적으로 인한
심혈관 질환을, 그리고 여러 가지 암의
발병률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다.
특히 대장암 발병률이 매우 증가하고 있는 것도
채식 위주의 식습관에 비해 육류와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서구식 식생활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고지방 · 고열량,
육식, 염장식품 등, 식품 첨가제 등은
현대사회의 음식문화 특성을 잘 나타내 보여준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건강을 생각하는 현대인이 늘면서
친환경적인 선식, 즉 사찰음식이 주목되어졌다.
그래서 사찰음식 전문점과 채식 전문점이
많이 생겨났으며, 책으로도 편찬되어
집에서도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사찰음식을 배우고
다도 다식을 체험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또한, 사찰음식 연구에 매진하는 스님과 단체도
많으며, 강좌를 열어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종교는 필연적으로 문화적 속성을 가지고, 다양한
것을 파생시킨다. 선식도 불교에서 파생된 것으로
문화적 · 종교적 속성을 잘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 된다.
사찰음식의 속성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살생 계율에 따라 육식을 금하고 있으며,
채소류를 중심으로 하는 식물성 식품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 동물성 식품의
과잉으로 인한 각종 성인병과 암을 예방하는
지혜와 산에서 나는 자연식품을 이용함으로써
가공식품의 늪으로부터 벗어 날 기회가
될 수 있다. 또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이 만들어지는
시은施恩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수행자의 자세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다.



9월 12일 금오대종사다례



9월 21일 월탄스님 49재



9월 26일 초하루



9월 30일 속리산 문화축제



10월 4일 만세암 지윤스님 주지 신임발령



멋있는 단풍이 있는 법주사

쾌청한 하늘, 풍성한 단풍과 함께하는 법주사

큰 도움을 주고, 즐거울 때에나

괴로울 때에나 변하지 않으며,

좋은말을 해주고 동정심이 많은 친구가 되라

법구경

2022. 10 법주사 행사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국민의날 음 9.6 광명진언기도 어린이법회
2 7	3 개천절 8 약사재일 다도반법회	4 중양절 9 합창단법회	5 10	6 11	7 12	8 한로 13 어린이법회
9 한글날 14	10 15 보름 대체공휴일	11 16 이두대종사다례 미륵재일철야기도	12 17	13 18 지장재일 지장회법회	14 19	15 20 다라니독송기도 법주회 법회
16 21	17 22 다도반법회	18 23	19 24 관음재일	20 25	21 26	22 27 어린이법회
23 상강 28 30 6	24 29 31 7	25 10.1 초하루 신중기도입재 보현회 법회	26 2	27 3 신중기도회향	28 4	29 5 어린이법회

■ **초 하 루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7시 30분, 8시 30분 / 대전지역 – 선샤인호텔 앞 오전 8시 10분
■ **미륵재일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후 3시 / 대전지역 – 선샤인호텔 앞 오후 2시 30분
■ **지장재일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8시

수능백일기도



2023년 수능 100일기도가 봉행되오니
수능 및 각종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불자님들은
합격의 원을 세우고 동참하시어 소원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 **입　　재** : 불기 2566년　**8**월 **10**일(음력　7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 **회　　향** : 불기 2566년 **11**월 **17**일(음력 10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
- **동 참 금** : **10**만원
- **동참계좌** : 농협 **403020 - 51 - 010482** (예금주 : 법주사)
- **문의 및 접수** : 원주실 (043)543-4755

법주사 솔향기 다도회 회원모집

법주사에서는 문화의 꽃이라 칭송되는
다도회의 회원을 모집합니다.
뜻있는 신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연락처 : 010-5498-5546 (회장)
010-7400-1388 (총무)

법주사 합창단원 모집

불심이 있고 불법홍포에 관심이 있으신 분
"함께해요"

연락처 : 010-5262-0871 (단장)
010-4019-2033 (총무)

법주사 광명진언 기도

법주사에서는 보물 1360호인 법주사 비로자나부처님전에 지극 정성으로
광명진언기도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불자님들께서도 자기 자신과 주위를 모두 밝히고 맑힐 수 있는 광명진언기도에
동참하셔서 뜻 하시는바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 **일　시** : 2022년 **10**월 **1**일(음 9월 6일)
  토요일 **14:00~15:00**시 (매월 첫째주 토요일)
- **동참금** : **2**만원

신묘장구대다라니경 독송 기도

"모든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 라는 다라니 중
"신비하고 미묘한 공덕을 갖춘 위대한 다라니인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통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도 얻고 건강과 행복도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일　시** : 2022년 **10**월 **15**일(음 9월 20일)
  토요일 **14:00~15:00**시 (매월 셋째주 토요일)
- **동참금** : **2**만원
- **장　소** : 법주사 대웅보전

